



'자유(1) 접시'.

영운(嶺雲) 스님은

- 1969년 통영 출생
- 1986년 입산 출가
- 1988년 단일계단에서 자민 스님을 은사로 사미니 수계
- 1993년 일타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 수계
- 1994년 약수암·견성암·보덕사·승가사·내원사·대성암 등 제방선원에서 인거
- 2001년 전통도자 입문
- 2006년 경인미술관에서 첫 번째 전시회
- 2008년 경인미술관에서 두 번째 전시회

도자기 물고기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영운 스님 두 번째 개인전 '나는 나비에요'

8월 13~19일 경인미술관서 개최

전통 도자 연구에 매진해 온 영운 스님이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 제2전시실에서 두 번째 전시회를 연다. 스님의 어린 시절 추억이 아로새겨진 통영의 바다향기를 가득 싣고 울림줄만한 물고기들 도반삼아 동심과 만발 채비로 한창이다. 고즈넉한 곳에 자리한 미술관, 나비가 되어 날아온 스님의 작품들은 무슨 얘기를 들려줄까? 벌써부터 기대가 크다.

#일렁이는 침묵, 그 속에서 나를 찾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도 만 가지 생각이 일어났다. 스님은 작은 공방을 토굴삼아 도자기와 마주했다. 그 후로 선방보다 흙이 좋아 도자기만 구우며 산다. 운명일까. 이른 아침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미치도록 물고기만 만든 적도 있다. 그렇게 완성된 물고기 8000마리를 이번 전시에서 설치미술로 만난다.

완벽하게 완성된 도자기란 처음부터 없다는 것이 스님의 고집이다. 마음에 드는 것도 안 드는 것도 없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과거에 대화 나섰던 그릇을 만지면 스님만 알아보는 흔적이 있어 당시의 슬픔과 기쁨을 읽어낸다. 세월이 흘러도 그 순간의 기억들은 흙 속에 알알이 남는다. 그런 이유로 스님은 작업에 임하며 화를 내지 않는다. 무명한 겨울처럼 나를 비춰보는 겨울이 물레 위에 돌고 돈다. 스님은 도자기 공부를 하면서 점차 유연해지고 자유로운 나를 느낀다.

#자연이 만법이다

흙은 자연의 숭고한 응축이다. 다보여래의 성품을 지닌 흙이 스님의 손끝으로 전해져 정념(正念)하게 한다. 그렇게 완성된 도기들은 스님의 화두가 맺은 하나하나의 집포다. "절제된 정신을 오롯이 담겠노라"며 신중을 기한다. 완성된 기물은 어김없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와 지금 이 순간 장군 죽비가 된다.

스님은 세상에 호기심이 많을 나이에 출가해 10여년 여러 선방에서 안거를 하며 정진하다가 '문득 다가온 인연'을 따라 도자기를 굽기 시작했다. 그리고 10년 세월을 흙 속에 다시 묻었다. 흙을 만지고 있으면 평안으로 자연스레 물입했다. 그 안에서 삼매의 환희를 만끽했다.

은사 자민 스님은 "수행이란 것이 한 가지 화두만 들어도 모자란 일생일 것인데 힘든 예술의 길을 거역이 가려 하느냐. 연약한 네가 그 고뇌의 길을 헤쳐 나갈 수 있을까" 염려하셨다. 자민 스님이 어머니와 같다면 아버지는 통도사 축서암의 수안 스님이다. 전시 소식을 전하자 "비구니 영운이 도자기전을 한대요. 눈 맑은 분들 오시어 구경하세요. 마음에 속 드는 작품은 가져도 됩니다. 좋은 인연이니까요"라는 '격려사'를 선포 주었다.

가연숙 기자 omiflower@daum.net



'일렁이는 침묵 속에서 나를 찾는다'.



'생명, 늘 자유를 꿈꾸었다'.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68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서, 첫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관공, 대령관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집바라, 천수바라, 도량개,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08년 8월 27일까지 ◆ 개강일시 : 2008년 8월 28일 오후 5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영임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장친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 경상도 : 011-327-7697 | 전라도 : 010-2311-015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